



16면

익산시, 도농 복합도시 특화 유통체계 구축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음 3월 11일) 제2994호

대표전화 (063)288-9700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총력

전북도, 신속 예타 추진
내년 예산 반영 노력

1조원 이상 경제적 효과
3284명 고용 창출 전망

금란도, 군산내항 등 연계
해양레저공간으로 재개발



군산항 인근 금강하구에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 금란도

전북도가 금란도 준설토투기장 포화에 따라 군산항 최대 현안사업인 제2 준설토 투기장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 아래 위치해 금강으로부터 유출되는 토사와 밀물시 외해로부터 유입된 부유사 침전으로 매년 300만㎡ 가량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다.

이율리, 군산항 유지 및 인출항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매년 100만㎡ 정도를 준설해 금란도 투기장에 투기해 왔으나 금란도 투기장이 거의 가득 차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해수부와 해수청, 군산시 지역정지권과 지속 협력해 향후 30년간 활용할 수 있는 4.287억원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추진시기 등이 결정되지만 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예타 추진 및 '23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마치고, 내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8월 이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는 복안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해 2023년 예산을 확보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을 전망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항 7부두 옆 서방파제 측면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219만㎡의 규모로 건설, 향후 30년간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된다.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원 이상이고,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에 75%에 달하는 215만㎡의 새로운 부지가 생겨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가능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는 군산내항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 및 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문화·관광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금란도 관련 용역을 착수하고, 군산·장항항 상생협업체를 본격 가동하는 등 금란도 개발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토 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금란도 예타 통과 및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한 계획"이라며 "군산항 관계자,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제로플라스틱 전북 성공을 위한 민관동행 협약식이 10일 전주 객사 카페 흥시공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유혜숙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29개 동행업체를 대표한 김중혁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민관협의체 4기가 출범했다.

도는 10일 송하진 도지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혜숙 상임대표와 29개 동행업체를 대표한 김중혁 대표가 폐 SLOK가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날'에 맞춰 진행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체험행사(분리배출 요령, 자전거 발전기, 3분 플로깅 등)를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제로 플라스틱

1회용품 줄이기, 도민들과 함께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민관협의체 4기 출범
전북지속가능발전협·동행업체들과 실천 협약 체결

전북 사업에 대한 관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유컵 사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사업은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1회용컵 대신 공유컵(TURN블러)을 제공하고,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회수에 다시 이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컵과 개인컵 사용으로 총 29만 개의 1회용컵을 줄여 8.4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뚜껑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3년간 총 56만 개의 1회용품을 대체하는 성과다.

지난 2019년 객리단길 내 12개 업체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 29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도는 객리단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는 남원 시청로와 익산 대학로에도 1회용컵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혜숙 상임대표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사업이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우수사례인 만큼, 지속가능한 전북도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동행업체 김중혁 대표는 "주민들이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동행업체만의 특별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힘이나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중립 수도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며 "전북도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따른 미래

전환의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지난해 조성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농업 확산 및 미래농업을 위한 거점지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 8월에 선정된 이후, 기본계획 마련과 인근 지역주민과 상생협약을 통해 작년 11월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중이다.

핵심 기능은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인프라로, 보육·임대·실증 온실, 빅데이터센터 및 지원센터 등

ICT융복합 미래농업 거점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육성 기반 구축

의 핵심시설로 조성돼 있다. 우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미래 청년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며, '청년창업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개월동안 최신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실습온실 15개 구축으로 교육형 및 경영형 과정 총 97명이 교육 중이며,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2025년까지 300여명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창업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3년 동안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경영과 재배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창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임대온실은 2층 10개 구축으로 총 23명이 임대중이며, 4월 모집공고를 통해 12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ICT 기자재 표준화, 빅데이터, 기술혁신(R&D)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스마트팜의 국산화를 높이는 '한국형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육성'의 기반을 닦았다.

도정 핵심 프로젝트인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농진청 등)-실증(실증단지)-검·인증(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체계를 구축했다. → 2면에 계속

/유호상 기자

청년
국민연금

국민연금 덕분에 가족들 사랑이 커졌습니다

<김용호씨와 남원순씨의 딸 김지현씨>

든든한 국민연금으로 나의 걱정은 가벼워지고 가족의 행복이 늘어납니다

부모님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까지

연결됩니다 행복한지금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공단